Naudé의 도서관 사상 연구

- 〈la Bibliothèque Mazarine〉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Thought of Library of Naudé: From the Perspective of La Bibliothèque Mazarine

남 태 우 (Tae-Woo Nam)*
조 흥 연 (Heung-Yeon Cho)**

목 차

1. 서 론
2. Naudé의 생애와 업적
3. Naudé의 도서관 및 사서직과의 인연
4. 〈Bibliothèque Mazarine〉과 Naudé
5. 결 론

초 록

Gabriel Naudé는 17세기에 보편적 도서관 정신을 구현시킨 프랑스의 학자사서이자 도서관 사상가이다. 이탈리아에서 12년 동안 추기경들의 개인사서직을 수행하였으며, 프랑스에서 31년 동안 사서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프랑스 도서관 정신의 정수인 〈la Bibliothèque Mazarine〉에서 그의 도서관 사상을 구현시켰다. 또한 그는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가치를 최초로 인식하였으며, 기원전 Callimachus의 도서관 정신을 계승한 학자사서이자 도서관 사상가로서 도서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audé의 전 생애에서 '도서관 사상'을 꽃피게 한 〈la Bibliothèque Mazarine〉을 고찰하고 이들이 현재의 도서관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Gabriel Naudé is a great thinker and academic librarian in France who realized the spirit of universal public library in 17C. Based on the experiences of private librarian for 12 years in Italy and public librarian for 20 years in France, he concretized his thought for public library in 'la Bibliothèque Mazarine', which is the essence of the spirit of public library in France. He also realized the importance of librarians as specialists, for the first time, who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development of the library community as one of the great thinkers of public libr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la Bibliothèque Mazarine' where the spirit of public library had been prospered through the entire life of Gabriel Naudé.

키워드: 노데, 마자랭, 마자랭 도서관, 도서관사
Naude, Mazarin, Bibliothèque Mazarine, Library History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eni58@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3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8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363-384,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363]

www.kci.go.kr

1. 서 론

Francis Bacon(1561~1626)은 자신이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도서관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을 "도서관은 진실한 미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망상이나 기만이 없는 모든 성자의 유골이 보존된 성지와도 같다"라고 표현하였다(Murray 2009, 128). 또한 Jean Antonie Condorcet(1743~1794)[1]는 도서관을 "사람들이 홀로 조용히 자유롭게 책에서 받은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로 싸우는 아주 정치적인 전쟁터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사상은 17세기 프랑스의 걸출한 학자사서이자 도서관 사상가인 Gabriel Naudé(1600~1653)에 의해서 구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Naudé를 일컬어 '라이브러리언십의 아버지(the father of librarianship)' 또는 '사서의 사서(Librarian's librarian)'라고 부르기도 한다(Mowery 1951, 1). 또한 '도서관 사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확립한 것으로 그를 '도서관 사상의 개조(開祖)'라고도 한다(椎名六郎 1977, 183).

Naudé는 도서관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갖춘 그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으며, 도서관 발전과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자사서'였다. 그러나 그를 철학자나 사상가로 인정하는 학자는 없다. 하지만 Columbia University의 르네상스 학자인 Paul Kristeller는 Naudé를 17세기 역사학 및 철학의 주요 인물로 보았다(Kristeller 1979, 41). 그 당시, 인문주의 사상의 중심지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옮겨갔는데, Naudé가 이런 전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Naudé의 영향력은 1627년에 『도서관 설립에 대한 권고(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 Présenté à Monseigneur le Président de Mesme)』(Naudé 1627)(이하 Advis…으로 약칭)라는 걸출한 논저의 출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Advis…』는 라이브러리언십에 대한 그의 초기 저작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에서 12년 동안 추기경들의 개인사서직을 수행한 경륜과 프랑스에서 20여 년 동안 사서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프랑스 도서관 정신의 정수인 Bibliothèque Mazarine에서 그의 도서관 사상을 구현시켰다. 그는 훌륭한 사서 없이는 훌륭한 도서관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그는 자신이 지닌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날 프랑스 도서관 정신의 핵심인 Bibliothèque Mazarine을 위해 일생을 바쳐 공헌하였다. 이러한 Naudé의 업적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서관계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사상'을 정립한 Naudé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고, 이러한 '도서관 사상'을 꽃피게 한 Bibliothèque Mazarine의 설립을 사회적·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Naudé와 Bibliothèque Mazarine이 현재의 도서관계에 미친 영향력과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교육개혁 옹호자이다. 인류가 무한히 완전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진보이념을 내세운 주요혁명가 중 한 사람이다. 1769년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고 거기에서 수학 및 기타 주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www.kci.go.kr

2. Naudé의 생애와 업적

Gabriel Naudé(1600～1653)의 생애는 유럽사에서 가장 활발했던 세기들 중의 한 기간에 속한다. 이 당시는 대륙 전체에 걸친 시민 불안, 잉글랜드의 성실청(星室廳) 법원 판결의 불공정, 스페인 제국의 와해와 30년 전쟁 등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 파리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William Shakespeare(1564～1616)와 Molière(Jean-Baptiste Poquelin, 1622～1673) 희극의 초연을 관람하고 있었고, Rembrandt와 Velasquez의 회화 작품들을 감상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과학적으로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에 해당된다. Gottfried W. Leibniz, René Descartes와 Baruch Spinoza가 전통 철학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Isaac Newton이 '만유인력(universal gravitation)'의 원리들을 전개하고 있었던 한편, Johannes Kepler는 근대 천문학의 토대를 놓은 '행성운동 지배 법칙(laws of planetary motion)'을 공식화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남태우 2013, 19-21).

이처럼 Naudé의 생애는 유럽사에서 문화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시기였던 반면에 사회적·과학적 사건이 활발히 일어났던 역동적인 기간이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이 컸던 시기였다. 이러한 지적환경은 Naudé의 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남태우 2013, 20).

초년기에 Naudé의 부모는 Naudé의 독서에 대한 강한 성향을 발견하게 되어 그의 교육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Naudé는 라틴어를 수학한 이후 종교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문학석사 과정에 진학하려는 계획을 세운 이후에는 인문학과 철학 분야의 지식을 쌓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였다. 1612～1613년 사이에 Naudé는 12～13세의 어린 나이에 종교학교인 Collège du Cardinal Lemoine에서 2년간 인문학을 공부하였고, 1615년～1616년까지 귀족학교인 Collège de Navarre의 Claude Belurger 교수 밑에서 수사학을 수학하였다. Pintard에 따르면 무신론자인 Belurger 교수는 Naudé에게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종교적인 영향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학업하며 Montaigne나 Pierre Charron(1541～1603) 등과 같은 작가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모럴리스트(moraliste)'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Baert 2006-2007, 4). 이후 Collège d'Harcourt에서 Pierre Padet 교수로부터 논리학을 수학하였고, 1618년에는 Jean-Ceeile Frey 교수의 지도로 형이상학을 수학하였다. 이후 1년 정도 Collège de Clermont에서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1620년에는 '7 자유학과(7 liberal arts)'를 수료하여 문학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한 라틴어 공부 이후 종교 집단에서 종교원리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가 다작가로 활동한 것도 이처럼 학문 연마시기에 다학문을 통섭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Naudé는 Collège de Navarre에서 Belurger 교수의 지도를 받을 때 무신론적 사상가들의 책을 통해서 종교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이런 성향은 과학적인 학문에 더 적합한 성격을 형성시켰다. 이런 성향 때문에 Naudé는 '회의론적인 모럴리스트'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Naudé의 친구들은 그를 '회의론적 도덕주의자'로서 용기를 기지에 결합시킨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www.kci.go.kr

(Lemke 1991, 27). 또한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 추기경과 왕의 개인사서로 12년 동안 활동하면서 여러 학회와 학술모임에 참여하여 꾸준히 연구를 지속하였다. 학술모임에서 얻은 연구결과들을 모국의 학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지(書誌), 해제(解題) 등을 작성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그의 이러한 학술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서지가 또는 해제가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다(남태우 2013, 23).

인문학과 철학공부를 마친 후 Naudé는 의학 공부에 전념하였다. Naudé는 그의 대부인 Gabriel de Guénégaud의 후원으로 의학 과정에 입학하여 René Moreau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Naudé는 많은 보수가 보장된 의학분야의 직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문학 분야에 전념하였다. 당시 Naudé의 의학 지도교수인 Moreau는 파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인문고를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Naudé가 최초로 라이브러리언십에 관심을 갖게 한 장서가 중 한 사람이다.

Naudé의 직업은 시작과 마지막이 '라이브러리언(librarian)'이었으며 학자, 의사 그리고 학식있는 작가이자 서지학자(bibliographer)였다. Naudé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 학위는 의학이지만, 그의 주된 관심사는 '책과 도서관'이었으며, 이들을 수집, 정리, 축적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도서관 건립이라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평생을 '라이브러리언'으로서 종사하게 된 것이다. 그는 프랑스 및 유럽에 존재하는 다수의 도서관의 사서로 초빙되어서 평생을 사서로 봉직하였으며, 그가 봉사하였던 도서관들에서 선각자적인 사상과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원전 3세기경의 Bibliotheca Alexandrina에서부터 내려온 '학자사서'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남태우 2013, 23). 특히 1627년에 발행한 『Advis…』는 그의 도서관 사상의 결정판으로써 Bibliotheca Memmiana에서의 6년여에 걸친 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된 도서관학의 첫 작품이다. 이 저작은 도서관과 도서관학에 대해 논리적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남태우 2013, 47).

그는 또한 『Le Marfore, Ou, Discours Contre Les Libelles: D'ou Vient Cette Si Grande Folie Citoyen』(1620)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는 당시 프랑스 의회 의장이었던 Henri de Mesme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논문으로 인하여 Mesme는 Naudé를 그의 개인 도서관 사서로 초빙하기에 이르렀다(Franklin 1901, 7). Mesme는 그 당시에 약 8,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한 방대한 개인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도서관의 자료들을 원하는 학자들에게 이미 개방한 상태였다. 당시 개인도서관을 학자들에게 개방한 것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혁신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풍조는 '책은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 도서관에서의 경험은 Naudé에게는 최초의 사서직이었으며, 후에 이 도서관은 Bibliotheca Memmiana가 되었다. Naudé는 Bibliotheca Memmiana에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도서관을 17세기 초기의 가장 저명한 도서관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1629년 파리 주재 바티칸 대사였던 추기경 Jean-François de Bagni(1614~1621)가 교황령(Papal States)으로 귀국하면서 Naudé

www.kci.go.kr

에게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의 개인문고의 사서로 근무할 것을 요청했고, Naudé는 이 요청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Naudé가 이탈리아의 추기경들과 사서로서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다.

Bagni 추기경의 공식적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Naudé는 자신의 후원자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였다. 이탈리아에서의 Naudé의 모든 저작은 주로 이 시기에 저술되었다. 이 시기에 저술된 작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633년에 베니스에서 발행한 『정치서지(Bibliographia politica)』(1642)를 들 수 있다. 그리고 1637년에는 이와 유사한 저작인 『군사서지(Bibliographia Militaris)』도 저술하였다(Murray 1917, 6). 이 두 저작에서 Naudé는 '서지(bibliography)'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였는데, 서지라는 용어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도서의 기술에 적용되었다.

Naudé는 '서지'가 학자들의 연구에 필수적인 도구임을 인식하여 다양한 분야의 서지를 작성함으로써, 그는 서지가 또는 서지학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당시에 학문연구에 있어서 서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지의 개념이나 그 기능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거나 학문연구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필수적인 도구임을 인식한 학자들이 많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서지가 출판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남태우 2013, 29).

이탈리아에서 사서직을 수행한 12년간은 Naudé에게 있어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방대한 문헌에 '서지와 해제'를 직접 첨부하여 프랑스 학자들에게 끊임없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그는 사서로 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의 도서관과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결과, Naudé는 이탈리아의 〈문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설명하는 글들을 게재하여 프랑스의 많은 학회와 학자들에게 이를 소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그를 서지학자로 평가받게 하였으며, 이러한 명성은 추기경 Jules Mazarin(1602~1661)의 개인문고의 사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1643년에는 Mazarin과 함께 Bibliothèque Mazarine을 설립하여 개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후 장서개발에 힘쓰다가 1653년 7월 29일, 53세의 나이로 북프랑스 Picardy의 Abbeville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Naudé의 생애를 일별하면 〈표 1〉과 같다(남태우 2013, 29).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22년에 처음으로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Naudé는 이탈리아 추기경들의 개인문고와 스웨덴의 왕실문고에서 12년을,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프랑스에서 라이브러리언십을 고취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1653년까지 무려 31년이라는 기간을 프랑스에서 재상과 추기경들의 개인문고에서 재직하였다. 그는 학문을 연구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서로 출발하여 사서로 생을 마감한 위대한 학자사서였다. 그는 그가 봉사했던 수많은 도서관에서 선각자적인 사상과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원전 3세기경의 Bibliotheca Alexandria에서부터 내려온 '학자사서'의 전통을 이어받은 17세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표 1〉 Naudé의 생애

연 도	내 용
1600년 2월 3일	파리 Saint-Méry에서 출생
~ 1619년	Collège du Cardinal Lemoine에서 문법을 공부함
	Collège d'Harcourt 철학과 수학을 공부함 Collège de Navarre에서 수사학을 공부함
1620년	문학석사학위 이수
	Paris 대학 진학. 의학 전공
1622년	Renè Moreau 사망으로 의학 연구 중단
	Henri de Mesme의 개인도서관 사서(6년간 봉사)
1626년	이탈리아 Padua 대학 진학. 의학 전공
	아버지의 죽음으로 프랑스 귀국
1627년	Henri de Mesme의 개인 도서관에서 사서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eque』 출판
1629년	추기경 Jean-François de Bagni의 사서
1630년	로마 추기경 Guidi di Bagno의 사서겸 라틴어 비서로 취직
1633년	Padua에서 의학박사학위 취득
1633년	학위취득 후 Louis XIII세의 유급 어의로 임명됨(명예직)
1641년	추기경 Antonio Barberini의 사서(이탈리아에서 12년간 사서직)
1642년	프랑스 귀국, Richelieu의 사서(단기간)
1643년	Bibliothèque Mazarine 사서
1644년	1644년 7월에 도서수집여행차 Flanders를 방문
1645년 4월 ~	1년간 Rome, Florence, Romagna, Mantua를 거쳐 Padua와 Venice까지 거친 후에 이탈리아의 책 구입
1646년 ~ 1648년	Valtellina Pass와 Switzerland 방문
	프로방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방문
1648년	왕실 주치의로 임명(무보수 명예직)
1651년	Mazarine 도서관이 파리고등법원의 명령으로 매각
1652년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의 사서로 의탁
1653년	Mazarine 도서관 재건을 위해 프랑스 방문
1653년 7월 29일	귀국길에 Picardy의 Abbeville에서 53세에 사망

3. Naudé의 도서관 및 사서직과의 인연

Naudé는 라이브러리언십을 위해 태어난 생애로 점철된다. 그는 '훌륭한 사서 없이는 위대한 도서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인식 하에 도서관 사상을 고취시키고 '학자사서'로서 그의 사상을 도서관 현장에 실행한 위대한 학자이자 도서관 사상가였다. 그의 도서관 사상은 보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하였다. Naudé가 도서관과 인연을 맺고 사서직을 수행한 이탈리아에서 12년과 프랑스에서의 20여년 간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3.1 René Moreau와의 인연

개인 장서가 René Moreau(1596~1650) 교수와의 인연은 Naudé를 독서가에서 애서가로, 장서가로 그리고 도서관 사서로 성장하게 하였다. Moreau는 Naudé에게 애서(愛書)의 방법을 가장 먼저 알려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Naudé는 1620년에 Moreau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의학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지도교수가 소유한 개인문고를 이용할 수 있었다. Moreau 교수는 그 당시에 파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인문고를 소유한 장서가이자 애서가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Naudé는 그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도서관과 라이브러리언십, 그리고 책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남태우 2013, 46).

3.2 Bibliotheca Memmiana의 육성

Henri de Mesme(1598~1688)는 Naudé가 1620년에 저술한『3월 혁명 반대 연설(Le Marfore ou Discours Contre les Lisbelles)』논문을 읽고 난 후 그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개인 도서관 사서로 책임을 맡기게 되었다. 이렇게 사서로서 첫 발을 들여놓게 된 Naudé는 6년 동안 Mesme의 개인사서로서 Bibliotheca Memmiana를 17세기 초기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개인도서관 중 하나로 육성시켰다. 그리고 Naudé의 도서관 업적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이 도서관에서 6년여의 근무 경험으로 탄생한 결과물로, 1627년에 발행된 '도서관론'에 해당되는『Advis…』저작이다. 이 책이 이후 유럽의 도서관 및 도서관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였다. Naudé는 이 저작에서 '도서관 사상'을 처음으로 전개하였으며, '도서관학'의 학문적 가치를 최초로 고양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를 '도서관학 사상의 개조'(椎名六郎, 岩猿敏生 1977, 183) 혹은 '사서직의 아버지(father of librarianship)', 진정한 의미에서 '사서의 사서(librarians's librarian)'라고 칭하게 되었다(Mowery 1951, 1).

3.3 Biblioteca Ambrosiana와 도서관 사상의 정립

1600년대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여행이나 도서관 여행은 필수적인 하나의 여정이었다. 사서직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기간이 부재한 상태였기에 도서관 여행은 매우 중요한 견문적 학습과정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Naudé가 1600년대 중반에 여행한 대표적인 도서관은 Bibliotheca Ambrosiana와 Bodleian Library였다.

Naudé는 Bibliotheca Ambrosiana를 방문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재정리하게 되었다. Naudé는 그 자신이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저작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노력하는 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Gutenberg가 인쇄술을 발명했고, 중국과 사마르칸트(Samarqand)에서 제작된 종이가 1200년경부터 수입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도서의 값이 매우 비쌌고, 희귀서적이나 원고를 구입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환경에서 Naudé는 희귀장서나 논문을 많이 소장하여 "대중은 공공의 복지와 개인적인 안락함을 선호한다"라는 명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던 Biblioteca Ambrosiana의

www.kci.go.kr

도서관 운영방식과 사서의 직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남태우 2013, 40).

3.4 Naudé와 이탈리아 추기경과의 인연

1629년에 프랑스로 일시 귀국했던 Naudé는 같은 해에 이탈리아의 추기경 Jean-Francois de Bagni 문고의 개인사서가 되었다. 이것이 Naudé가 이탈리아의 추기경들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다. 1630년에는 De Thou 도서관의 사서 Pierre Dupuy가 교황 대사 Guidi di Bagno에게 Naudé를 사서로 추천하였다. Naudé는 Hugo Grotius, 후에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의 대표가 되는 Lucas Holstenius, Jacques A. de Thou 도서관의 사서인 Pierre와 Jacques Dupuy 형제와 친분을 쌓았으며, 이들과 함께 철학과 종교를 논하기 위해 de Thou 도서관에서 매주 만나게 되었다(Clarke 1969, 332). 이들과의 친분은 Naudé가 이탈리아로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고, 이 인맥은 Naudé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학계의 네트워크 중심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남태우 2013, 39, 56-57).

또한 Bagno는 Naudé의 『Advis…』의 사본을 본 후, 1630년에 그를 사서 겸 라틴어 비서로 임명하였다(Clarke 1969, 335). 그리고 1630년에 추기경 Bagno가 이탈리아로 귀국할 때 Naudé도 공식 가족으로서 함께 가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에서 중도에서 그만 둔 의학연구를 계속하여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로 인해 1632~1633년 경 Louis XIII세의 어의로 임명을 받았지만 의료업을 개업한 적은 없었다(남태우 2013, 62).

이후 1641년 7월에 Naudé는 그의 후원자였던 추기경 Bagni의 죽음으로 파리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추기경 Barberini가 비서 겸 사서직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Naudé는 그 직을 단지 몇 개월만 수행하였다. 몇 개월만 비서 겸 사서직을 수행한 이유는 1642년 초 추기경 Richelieu가 그를 개인사서가 되어달라고 파리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 당시 Richelieu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거대한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그 당시의 유럽은 학문에는 국적도 타국인에 대한 차별도 없을 때였다. 이렇듯 Naudé는 3명의 이탈리아 추기경들의 개인문고의 사서직을 12년간 수행하였다.

3.5 Bibliothèque Mazarine의 건립

Naudé는 이미 서지학자로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재상 Richelieu는 1642년, Naudé를 그의 개인사서로 초청했다. 프랑스에서 Richelieu 도서관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 해 12월 4일에 Richelieu가 사망하여 도서관 준비가 무산되었으나, 그의 장서는 Mazarin에게 상속되어 Bibliothèque Mazarine으로 승계되었다. Richelieu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거대한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그 꿈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Naudé와 Mazarin 두 사람에 의해 Bibliothèque Mazarine에서 실현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Bibiotheque Richelieu는 오늘날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기원이 되었다.

3.6 Naudé와 Bibliothèque Mazarine

추기경 Richelieu의 사망 이후, 1643년부터

www.kci.go.kr

Naudé는 추기경 Mazarin을 돕기 시작하였다. Mazarin은 오랫동안 도서 수집가로 활동한 장서가였으며, 이미 5,000여 권 이상의 장서량을 로마에서 수집하였다(Rice 1939, 24). Mazarin의 도움으로 Naudé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어느 도서관보다 규모있는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Naudé는 1643~1653년까지 Bibliothèque Mazarine에서 사서로서 근무하였다.

1661년에 Mazarin이 사망하였지만, Bibliothèque Mazarine의 성장은 지속되었다. 특히 1651년 시민전쟁과 1789년 프랑스 혁명기간에도 Bibliothèque Mazarine은 살아 남을 수 있었다. 프랑스 혁명기간 중에는 대수도원장이자 도서관 사서인 Abbe G. Michael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 수도원이나 망명한 귀족들로부터 서적을 기증받을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정치적 이유로 몰수한 서적들의 대부분을 기증받게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대 도서관의 성립을 이끈 사람이 Mazarin이라고 한다면 근대 도서관의 성립을 도운 사람으로는 Naudé를 들 수 있다.

3.7 Bibliothèque Mazarine의 재건

Naudé는 1648년부터 1653년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의 내란인 'Fronde 난'으로 Bibliothèque Mazarine의 사서직에서 추방되었다. 이후, Naudé는 1652년에 스웨덴의 Christina 여왕의 초청으로 Stockholm 궁정 문고에서 왕실 사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당시 Christina 여왕은 Descartes를 궁중으로 초청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학자나 예술가와 교신을 하여, 학문과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Académie를 창설하였다(남태우 2013, 79).

Christina 여왕은 유럽 전역의 학자를 모으면서 Naudé를 학자로서가 아니라 사서로서 초빙한 것이었는데, 이는 Christina 여왕이 도서관의 중요성과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Naudé가 훌륭한 사서로서 상당한 명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53년에 Mazarin 추기경이 복귀한 후 Bibliothèque Mazarine 장서를 재건하기 시작하였고, 성공적인 재건을 위해 Naudé를 다시 프랑스로 부르면서 스웨덴에서는 1년간 만 지내게 되었다.

이처럼 Naudé는 그의 생애 모두를 사서직으로 재직하면서 도서관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학자사서였다. 이탈리아에서는 3명의 추기경의 개인문고 사서직과 스웨덴 왕궁도서관의 단기간의 사서직 등 총 12년간을, 그리고 프랑스에서 Mesme, Richelieu Mazarin 등의 개인문고에서 20여 년 등 총 30여 년 이상을 사서직에 헌신한 사서의 사서이자 학자사서였다.

4. 〈Bibliothèque Mazarine〉과 Naudé

본 장에서는 프랑스에서 도서관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한 Jules Mazarin(1602~1661)의 생애와 그의 문화에 대한 열정, 그리고 Bibliothèque Mazarine 설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Mazarin의 도서관 사상을 현장에서 응용하여 프랑스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시킨 Naudé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의 1627년 작『Advis…』에 투영된 Naudé의

www.kci.go.kr

도서관 사상은 Bibliothèque Mazarine을 통해서 가능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Bibliothèque Mazarine은 17~18세기 내내 유럽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근대 도서관의 뿌리가 되었다.

4.1 도서관 설립의 메세나 Mazarin의 생애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사업에 관여해 왔다. 절대왕정 체제에서의 문화정책은 두 가지의 국가 역할, 즉 개별 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후원자'로서의 역할과 예술작품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프랑스 혁명은 국가로 하여금 문화재의 보호, 교육과 보급에 관한 확대된 책임을 부여하였다. 프랑스는 16세기 왕실의 예술가에 대한 후견에서 오늘날의 문화통신부에 이르기까지 문화분야에서 국가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송도영, 이호영, 조헌영 2003, 241).

프랑스의 절대 왕정시기인 Louis XIV세 때의 재상이었던 추기경 Mazarin은 문예의 육성과 보호에 노력을 경주한 인물이다. 그 가운데 그의 개인문고를 민중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Naudé와 함께 Bibliothèque Mazarine을 설립한 것도 문화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의 메세나(mecenat) 정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남태우 2013, 131).

Mazarin은 1602년 이탈리아서 탄생하였지만, 1639년 프랑스로 귀화하였다. 그는 추기경이자 정치인으로서 프랑스의 재상을 지냈다. 그의 집안은 Colonna 가문(Colonna family)[2]을 위해 일했으며, Mazarin은 그 가문의 후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교황 휘하의 군대에서 일하다가 외교관이 되어 프랑스로 갔고, Richelieu 추기경을 만난 뒤 프랑스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어 결국은 프랑스로 귀화하게 되었다. Mazarin은 대단히 명석하고 수완이 좋았으며, 대처능력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아 Louis XIII세에 의해 사망한 Richelieu의 뒤를 이어 1642년에 프랑스의 재상에 임명되었다. Mazarin은 문화를 창출할 줄 알았고, 개인문고를 설립하여 Académie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하였다. 또한, 걸출한 학자사서인 Naudé를 개인사서로 임용하였으며, 후에는 이 개인문고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모체가 되었다(남태우 2013, 118).

4.2 Mazarin의 Académie 창립과 도서관

프랑스에서 Académie는 1648년 Mazarin에 의해 미술 및 조각 아카데미인 Royal Academy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의 파리 Académie des sciences는 5개의 Académie로 구성된 Institut de France[3] 중 하나이며, 프랑스의 Académie는 Mazarin의 문학과 예술의

2) Colonna 가문 또는 Colonna 가(家)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로마에서 세력 있는 귀족 가문으로, 교황과 그 외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중세를 통틀어 이들은 로마의 귀족 문벌들 가운데서도 가장 세력있는 가문으로 이름을 날렸다.

3) 프랑스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하며, 가장 권위있는 명예로운 학술기관이다. 1635년 추기경 리슐리외가 창설하여 프랑스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803년 부활되어 오늘에 이른다. 입후보제의 보궐선거로 항상 40명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은 '불멸의 지성'이라고 불리며 당대 일류의 문학자, 다른 분야의 문학적 소양이 비범한 대가들을 망라하고 있으나 Molière, Jean-Jacques Rousseau, Honoré de Balzac 등이 회원이 아니었다는 예외도 있다. 내용과 형식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www.kci.go.kr

열정으로 탄생된 것이었다. 그 결과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Bibliothèque Mazarine이다. 이 도서관의 설립은 Institut de France의 회원들의 연구력을 증진시키는데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규적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남태우 2013, 132).

이와 같이 Académie의 형성시기부터 문화제도라는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예술과 직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 문화제도 속에는 '도서관 문화'도 포함되었다. 그가 주창한 '문화의 경제화'는 오늘날의 프랑스의 각종 고급품 및 사치품을 탄생시켰고, 1980년대 Mitterrand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Mazarin의 생애와 그의 정치, 외교적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저들에서 기록되었지만, 도서관에 대한 그의 공헌은 대부분 간과되었고, 기타 다른 업적들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Mazarin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엄청났다. 그는 위대한 애서가이자 열정적인 장서 수집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개인문고인 Bibliothèque Mazarine을 Naudé와 함께 설립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였다.

4.3 Bibliothèque Mazarine과 Naudé

Naudé는 1643년부터 추기경 Mazarin을 보좌하기 시작하였다. 적절한 후원자와 적절한 서적인(bookman)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도서관 문화를 꽃피우는 데 있어 좋은 토양이 되었다. 그리고 Mazarin도, Naudé도 그 다음 수년 동안 함께 성취한 일들을 홀로는 완수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의 관심은 학문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었고, 그들 열정의 실현자였던 Naudé는 독단적이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열린 마음, 폭넓은 교육과 소명의식의 큰 즐거움을 가지고 Bibliothèque Mazarine 설립에 임하였다. Mazarin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1627년 『Advis…』에서 권고했던 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643년부터 Naudé는 훌륭한 도서관을 설립하는 일에 곧바로 착수했다. 그 당시에 Mazarin은 오랫동안 도서 수집가로 활동하였으며, 이미 5,000여 권 이상의 장서량을 로마에서 수집한 상태였다(Rice 1939, 24). 도서수집에 열성적이던 Mazarin의 도움으로 Naudé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어느 도서관보다 규모있는 도서관 설립을 이룩할 수 있었다.

Naudé의 도서관에 대한 첫 번째 공헌은 Mazarin으로 하여금 Jean Descordes 도서관 자체를 구입하도록 설득하는 일이었다. Descordes는 진정한 애서가이자 장서가였으며, Simeon Dubois의 『Lieutenant General in the Seneschal's Court at Limoge』를 구입함으로써 그의 도서관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Descordes는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던 1642년 8월 초에 도서관을 매도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장서가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Richelieu 또는 Mazarin 중 한 명이 구입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담기도 하였다.

그 당시 Naudé는 Descordes의 장서에 대한 목록, 즉 『Jean Descordes 목록』을 작성하여 Mazarin 추기경에게 보냈다. 그 당시에는 Mazarin 이외

www.kci.go.kr

에도 도서관을 구입하려는 몇 사람의 원매자가 있었다. Mazarin 추기경은 처음에 1,900리브르(livre)[4]를 제안하였는데 결국 2,200리브르로 장서 모두를 구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장서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Bibliothèque Mazarine를 구축하는 데 훌륭한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Bibliothecae Cordesiance 목록』에서 Naudé는 분류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분류법은『Advis…』에서 개요를 전개시킨 것이다. 개별 도서분류 내에서 장서를 크기에 따라 배열하였는데, 처음에 2절판, 그리고 4절판, 8절판 순으로 배열하였다. 각 크기별 그룹 내에서 도서는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목록은 판매목록으로 사용할 만큼 많았으며, 저록은 상세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Mazarin 추기경이 그가 구입한 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구입한 도서를 배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비록 Naudé가 구입한 부가적인 많은 도서들이 Mazarine 도서관의 1/5 이상은 되지는 않았지만, 후에는 장서의 컨텐츠로 안내하는 서비스까지 수행하였다(남태우 2013, 68).

Descordes 도서관의 장서구성은 16～17세기의 2절지 책 100권, 4절지 책 200권, 8절지 책 300～400권 그리고 기타 소책자 등이었다. 장서는 거의 신학과 역사에 대한 도서로 구성되었다. 목록에서는 이들 두 주제가 542페이지 중 324페이지에 걸쳐 리스트되었다. 같은 해에 Mazarin 추기경은 이 장서를 구입하였으며, Naudé는 파리의 서적상으로부터 도서 6,000여 권을 더 구입하였다(Franklin 1901, 13). 그는 인쇄본뿐만 아니라 필사본들도 구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1644년에 Bibliothèque Mazarine은 필사본만 400여 권을 소장하기에 이르렀다.

1644년 1월 30일, Bibliothèque Mazarine이 세간의 지대한 관심 속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이 날짜의『Paris Gazette』지는 Mazarin이 모든 학구적이고 호기심 어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풍부한 소장도서를 "토론하고 질문하기(feuilleter)", 문자적으로는 "훑어 볼(leaf through)" 것을 매주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도서관에서 격려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신문에서 Naudé는 "가장 생각이 깊고 현명하고 근면한 사서이자 학자로서, 서적들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그의 도서관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une bibliotheque vivante - 살아 있는 활기 넘치는 도서관(a living, lively library)"이라고 불리게 되었다(Waard 1969, 65). 이 Bibliothèque Mazarine은 오늘날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으로 남아있다.

1644년 중반 무렵, Naudé는 더 이상 단독으

4) 리브르(livre)는 고대 로마 통화 동전인 '리브라'(libra)에서 유래한다. 리브라는 이탈리아에서는 '리라(lira)'로, 영국에서는 '파운드'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기호 £에 '리브라(libra)'의 머리 글자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리브르는 '프랑스 파운드' 또는 '프렌치 파운드(French pound)'로 불리기도 한다. 리브르는 프랑스에서 1795년까지 사용되었던 화폐와 동전이다. '리불'이라고도 표기한다. 부르봉 왕조 아래 프랑스에서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여러 화폐 제도가 혼재했고, 리브르는 그 중 하나였다. 1 리브르 = 1/6 - 1/3에큐(은화) = 루이 도르(금화) 1/40 - 1/20장. 보조 통화는 1리브르 = 20솔(스) = 240두니에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의 통화는 '프랑'과 보조 통화인 '상팀'으로 통일되었다. 이후로도 한동안 리브르는 프랑의 속칭으로 사용되었다. 리브라나 파운드 같이 리브르는 질량의 단위이기도 하다. 양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수치로 1리브르 = 0.5kg으로 통일되었다. 현재도 식품 등에 사용된다.

www.kci.go.kr

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한 사람의 조력자가 있어 전문적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서관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당시의 도서관에 대해 Louis Jacob은 프랑스와 그 밖에서 인쇄된 희귀서로 가득 찼다고 기술하였다.

Naudé는 근대 유럽 문화사에서 손꼽히는 최초의 대(大)사서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Advis…』에 자신의 목표를 아주 일찌감치 그리고 상당히 면밀하게 수립해 두었다. 그는 대규모의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무엇보다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훌륭한 책의 애호가로서, 그는 개인 장서도 8,000권 이상 수집하였는데, Mazarin 추기경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Naudé의 장서를 압류하였다가 나중에 모두 구입하기도 하였다.

Bibliothèque Mazarine은 프랑스에서 책을 대출한 최초의 도서관은 아니다. 필사본들은 Bibliothèque Mazarine이 개관할 당시에 여러 나라의 수도원에서 차용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Bibliothèque Mazarine은 학자들이 장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러한 프랑스의 라이브러리언십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 도서관은 그 설립의 시작부터 대중들에게 매주 수요일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Mazarin이 사망한 1661년에는 예외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서관 문호가 개방되었다(남태우 2013, 70). 이 정책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며, 도서관 웹사이트에 "Bibliothèque Mazarine은 모든 민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La bibliothèque Mazarine est une bibliothèque publique, ouverte à tous)"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남태우 2013, 147).

현재 Bibliothèque Mazarine의 고대 문서 컬렉션은 3,500점이 넘는 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14세기 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미 이야기(Roman de la Rose)』 필사본, 14권으로 이루어진 주석 성서, Charles de France의 『시도서(時禱書(Heures))』, 그리고 다수의 귀중한 악보들도 여기에 소장되어 있다. 오늘날 Bibliothèque Mazarine은 장서수가 500,000여 권이며, 연속간행물 2,600여 종, 인큐나블라(incunabula) 2,370권, 필사본 4,639권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서의 소장으로 인해, Mazarin은 파리에서 Bibliothèque Mazarine을 최초의 연구도서관의 하나로 고려하였다. 16~17세기의 역사서, 특히 종교, 지역 및 지방 프랑스사 장서들은 특별 장서로 분류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Insitut de France의 일부이며, Louvre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작업이 시작되었고, 30,000여 개 이상의 이미지도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장서와 신간서적의 구입, 저작권 등록법, 장서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

4.4 la Bibliothèque Mazarine의 파괴

프랑스 귀족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Louis XIV세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Mazarin 추기경이 오스트리아의 Ann 여왕에 행사한 영향력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1648년과 1653년 사이에 추기경을 축출하기 위해서 일련의 귀족 반란인 'Fronde 난'이 발발하였다. 'Fronde 난'은 귀족층이 왕권에 반대하여 벌인 운동이며, 여기에서 '프롱드(fronde)'는 당시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의 하나인 새총으로 왕권에 대한 반항을 상징했다.

www.kci.go.kr

당시 30년 전쟁을 치르고 있던 프랑스는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왕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구상, 관직의 창설, 연금의 부분적인 폐지, 공채 이자의 지급 지연, 무효화된 조세 부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에 사회에 전반적인 불만이 쌓여갔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법관들은 자신들의 관직에 대한 매관매직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또한 Louis XIII세의 총리 대신인 Richelieu 추기경이 국무회의를 강화하고 지방 장관을 임명하자 귀족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고등법원의 권한이 약화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었다. 이러한 불만으로 야기된 것이 'Fronde의 난'이다.

'Fronde 난'은 크게 세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국면은 고등법원이 주도한 단계였다. 1648년 5월, 고등법원의 'Fronde 난'이 발발했다. 고등법원의 법관들은 지사 제도를 폐지하고, 국왕의 칙령을 심의・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고히 하여 왕권을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또한 최고 법원들에게 과세 동의권을 주고, 새로운 관직의 창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안 27개항을 작성했다. 이들의 주장은 군주권을 제한하고 특권 귀족층의 신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고등법원과 수많은 대영주들이 민병대를 조직했으며 파리 군중들이 봉기에 가담했다. Condé 공(1621~1686)[5]의 군대가 수도를 봉쇄하고 봉기 세력이 약해지면서 양대 세력은 협정을 체결했다.

'Fronde 난'의 두 번째 국면은 165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왕족들의 반란이다. 고등법원 주도의 첫 번째 'Fronde 난'을 진압한 Condé 공이 1650년 소요를 일으켰지만, Mazarin이 이끈 왕군이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 그러나 1651년에는 고등법원의 법관과 Condé 공이 대신들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소요를 일으켰다.

그 결과 세 번째 'Fronde 난'(1650. 12.~1651. 9.)이 발발했다. 이 때문에 Mazarin은 프랑스를 떠났지만, 모후와 왕군을 지휘한 Turenne의 작전으로 Condé 공은 파리에서 패배하고 Espana로 망명했다. 그 후 몇몇 고등법원의 법관들과 대영주들이 유형에 처해졌으며, 마침내 Mazarin이 1653년 2월 파리에 복귀하면서 질서가 회복되었다. 5년 동안 전개된 'Fronde 난'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귀족들의 저항이었다. 하지만 'Fronde 난'에는 공동의 정치강령이나 지도자가 없었다. 'Fronde 난'의 실패는 오히려 Mazarin의 권력과 관료제적인 절대 왕정을 강화・확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왕 Louis XIV의 절대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봉기가 최고조에 달한 1651년 2월 6일, Mazarin 추기경은 야간에 파리를 도망치듯 떠났다. 즉, Mazarin 추기경은 목에 현상금이 걸린 채 외국으로 탈출하였고, 그의 재산은 몰수당했다. 8일 후인 2월 14일, Naudé는 Duboeuf 궁에 출석하도록 소환되었고, 도서관 열쇠들은 회계청 청장에게 반납되었다. Naudé는 Bibliothèque Mazarine의 장서들이 분산된 채로 공매에 부쳐지는 것을 방지하고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지만 실패하였다. 하지만, Naudé는 사서로서 기지를 발휘하여, 하수인들을 동원해 수천 점의 Bibliothèque Mazarine 장서들을 공매에서 다시 사들이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그는 나

5) 프롱드의 난(1648~53)으로 알려진 일련의 귀족 봉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봉기의 지도자.

www.kci.go.kr

중에 장서를 찾아내기 쉽도록 다른 낙찰자들(스웨덴의 Christine 여왕도 포함되었다)의 이름을 기록해 두어 사서로서 기지를 충분하게 발휘하였다. 책의 소장주 이동경로까지 기술한 것은 그의 책에 대한 애증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책의 이동경로에 대한 그의 집착은 그를 애서가와 서지가로 만들었던 동인(動因)이기도 했다.

또한 Naudé는 Bibliothèque Mazarine의 파괴를 모면하기 위해 의회에 보낸 서한인『프랑스로부터 소식(News from France)』을 발행하였다. 프랑스어 표제는『마자랭 추기경 도서관 매각에 관한 의회에의 조언(Advis a Monseigneurs de Parlement sur la vente de la bibliotheque de M. Ie Cardinal Mazarin)』이다. Naudé가 그의 에세이『프랑스로부터의 소식: 완전히 파멸되기 전의 Mazarin 추기경 도서관에 관한 기술(Remise de la bibliothèque de Monseigneur le Cardinal Mazarin par Ie Sieur de Naudé entre les mains de Monsieur Tubeuf)』에서 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프랑스로부터 소식(News from France: or the Description of the Library of Cardinal Mazarin Before it was Utterly Ruined)』과 함께 전자는 잉글랜드에서, 후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각각 1652년에 발행하였다.

이『News from France』에서 장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Naudé 자신의 개인적 의무를 설명하고 난 후, 그가 Duboeuf 추기경에게 도서관 전체의 장서실을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도서관 각 섹션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Naudé는 "나는 그때까지의 도서관 중 최고, 최대인 도서관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Duboeuf 추기경에게 간청했고, 공중이 위대한 보물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예하의 고귀한 의도들이 그렇게 가혹한 보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은 채 물러나왔다"고 기술하였다(남태우 2013, 140).

이외에도 Bibliothèque Mazarine을 구하려는 노력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Louis XIV세까지도 그 매각의 중단을 명령한 서한들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서는 철저하게 분산되었고 공매를 당하였다. 이와 함께, 추기경 Duboeuf는 도서관을 유지・보전시키지 않았으며, Mazarin의 적들은 장서들이 한 곳에 있으면 추기경이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지도 모를 것을 우려하여 조금씩 분산시킨 채 따로따로 매각할 정도로 교묘한 술수까지 도모하였다. 그래서 모든 장서들을 완전히 분산시켜 버렸다. 1651년 'Fronde 난' 동안에 Bibliothèque Mazarine은 파리 고등법원의 명령으로 매각되었고, Naudé는 그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Naudé가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불렀던 위대한 도서관은 1651년 초에 이처럼 'Fronde 난'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도서관의 몰수는 Naudé의 격분을 일으켰다. 또 다시, Naudé는 Bibliothèque Mazarine의 장서가 매각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면서 그의 탄원서 표제에 중립적인 용어『Advis…』를 사용하였다(남태우 2013, 141).

> 저명한 여러분들의 모든 법령들은 그것을 맞는 각 사람을 산산조각 내고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www.kci.go.kr

보는 모든 사람을 아연케 만드는 벼락과 같으므로, 제가 다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것의 제29번째에 대해(또는 지난달 29일에), 가장 저명한 Mazarin 추기경의 Bibliothèque Mazarine에 대해 발하였던 천둥소리는 엄청난 힘으로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앞서 말한 도서관에 관한 한, 여러분의 뛰어난 선함과 보호의 얼마간 매우 주목할 만한 영향에 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겪은 저 손실들을 결코 복구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손의 작품과 내 일생의 기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저로 말씀드리면 … 여러분의 정의의 하늘로부터 떨어진 - 저 낙뢰 때문에 극도로 경악했다는 것과 이 원인이 … 지금 나의 혀를 풀어놓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벙어리로 남게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단언하는 바입니다(Naude 1652, 61-63).

그런 다음 그는 도서관을 설명하고, 도서관에 기여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도서관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입게 될 법률가・교사・주교・병원과 그 밖의 개인들 및 기관들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이 도서관의 파멸이 모든 역사 속에 콘스탄티노플의 약탈보다 더욱 명확하게 언급될 것이라는 위협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강력하고 감동적인 말이었다(남태우 2013, 142).

… 그런 풍부하고 조예 깊은 작품이 해체되어야만 한다면, 사람의 눈들이 그것이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참으며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화염이 그것을 살려 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림없이(인간보다 자비로운) 불은 그것을 흠 없이 구할 것입니다. 아, 친절한 아폴로여, 막아주소서! 뮤즈들이여, 그들의 폭력을 멈추어 주소서!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은 결정이 되고, 법령이 제정되고, 최고 권력의 의지는 반드시 복종되어야 한다."고 말한들 어떠합니까? 오히려 법률들이 깨어지게 하고, 성직자 권력이 부복하게 합시다. 그렇게 수년 동안 수고해 온 작품이 국가의 명령으로 최근에 한 시간 만에 완전히 파멸되었다고 말들 하기 전에(Naude 1950, 75).

Naudé가 Bibliothèque Mazarine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절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러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은 'Fronde 난'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는 수순을 밟았다. 인간의 힘으로 도서관의 파괴를 막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호소한 것은 '아폴로여!, 뮤즈여!' 하면서 절대 신의 도움을 청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의 힘으로도 불가항력적인 것에 발악이라도 하듯 도서관에 대한 절망, 조국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Bibliothèque Mazarine의 파괴에 대한 Naudé의 수차례에 걸친 간절한 탄원들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의회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Louis XIV세까지도 그 매각의 중단을 명령한 서한들을 보냈지만 왕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 명령까지도 의회가 거부하였으니 Naudé의 간절한 소망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와 같이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불리웠던 Bibliothèque Mazarine은 1650년 초에 'Fronde 난'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와중에 1652년 Christina 여왕(당시 Sweden 여왕)[6]은 Naudé를 Vossius의 후임 사서로 임명하고 스웨덴으로 그를 초청하였다. 조

www.kci.go.kr

국의 도서관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힌 Naudé는 이 초청을 받아들여 스톡홀름의 왕궁 사서로 망명을 떠나듯 황망하게 출국하였다. Christina 여왕의 치하에서 Sweden 궁정은 망명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피난처가 되어 있었다. 여왕은 Upsala에서 위대한 프랑스인들의 모임을 개최할 정도로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을 우대해 주었지만, Naudé는 스웨덴 궁정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행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Naudé는 스웨덴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였다.

4.5 Bibliothèque Mazarine의 복구

1653년에 Mazarin은 복권된 후에 Naudé에게 파리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했고, 여전히 충성스러웠던 Naudé는 그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 다시 귀국하였다. 이와 함께, Mazarin은 분산된 Bibliothèque Mazarine 장서를 다시 모으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Mazarin보다 한발 앞서 Naudé 자신이 장서 매각시에 의학서적을 모두 사들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Mazarin의 복권으로 인해 Fronde 당원들조차 이제는 추기경의 비위를 맞추려 하면서 대중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함께 장서의 복원을 부지런히 도왔다. 권력을 되찾은 Mazarin 추기경은 자신의 사서 Naudé가 남긴 조언에 따라 나머지 도서관 자료들을 되찾는 일에 착수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궁정 대신들을 압박해 그들이 경매를 통해 산 추기경의 책들을 다시 반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Naudé는 Bibliothèque Mazarine 복원에 대한 꿈을 갖고 스웨덴으로부터 귀국길에 올랐으나 도중에 병에 걸렸다. 그는 파리에 도착하기 전 Abbeille(Somme)에서 1653년 5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만약 그가 몇 년 만이라도 늦게 사망했다면, 프랑스의 도서관 문화와 도서관학의 발전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4.6 Naudé의 문헌수집단 결성

1643년에 Mazarin은 자신의 개인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해 Naudé를 사서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Naudé는 장서개발의 일환으로 기존의 잘 설립된 도서관을 구입하려 수차례 도서수집 여행을 하였다. 그렇게 구입한 도서관 중 하나가 Jean Descordes 도서관인데, 장서수가 6,000권 이상이었다. Naudé의 숙련된 기법으로 도서관의 병합 작업은 15개월 이내에 수행되었으며, 10,000여 권의 책을 수집하게 되었다. 그 결과, 1652년에 Bibliothèque Mazarine은 거의 50,000여 권 이상의 장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Naudé의 『Advis…』 내용 가운데 현대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마도 도서관 개방과 장서열람에 대한 Naudé의 자유주의와 개방주의일 것이다. Naudé는 Mazarin 추기경을 위해 입수할 책들을 찾아 프랑스와 전 유럽을 누비는 '대 수집가(great collector)'로 변신하였다. 그는 개인장서와 도서관을 통째로 사들

6) 스웨덴의 여왕(재위 1632~1654)으로 국내 귀족의 세력을 누르고 30년 전쟁을 종식시켰다. 학예를 보호·장려하였고 알카디아 아카데미를 창설하는 등 스톡홀름에 문화적인 황금시대를 가져왔다.

www.kci.go.kr

였다. 수집한 책들은 Cleves 저택에 쌓여갔고, Mazarin 추기경은 큰 비용을 들여 Rubaeuf 저택(오늘날에도 Richelieu 거리에 남아있다)까지 동원하고 거대한 갤러리에 자신이 구입한 자료들을 소장하였다. Naudé는 도서관의 설계를 맡아 서가가 벽을 덮고, 훗날 더 많은 책을 보관할 수도 있는 원형 갤러리를 계획하였다(남태우 2013, 155).

Naudé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문헌수집단(la collection de littérature groupe)'의 결성에 관한 사실이다. 그는 '문헌수집단'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하고 조직한 사서였다. 사실 Naudé의 『Advis…』 내용 중 가장 강조된 내용은 장서수집 활동이다. 그의 장서수집은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인식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도서의 선정과 수집에 관한 2개 장(4장과 5장)이 총 9장으로 구성된 『Advis…』의 분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Naudé가 사서의 책임들 중에서 장서개발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수량에 관해서는, Naudé는 많은 장서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목적에 따른 선정이 필수적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는 상세한 실례들과 함께 1개 장 전체(제3장)를 이 주제에 할애하고 있다.

Naudé가 1643년에 Bibliothèque Mazarine의 개인사서로 취임할 당시의 장서는 5,000권 정도였는데, 8년 후인 1650년에는 약 40,000여 권에 달하여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왕립도서관과 비교할 만한 호화로운 도서관으로 육성시켰다. 수집된 책들은 모두 모로코 제본의 호화 장정이었고, 각 책에는 추기경가(家)의 황금 문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Naudé의 장서수집은 병적 수준이었으며, 약탈자와도 흡사했다. 애서가로서의 Naudé가 아니라 책 도둑으로서의 그를 볼 수 있는 측면이다. Naudé는 실제로 서적이 있는 곳에 자주 간 것이 틀림없고, 그의 벗들에게 여행할 때마다 똑같이 행하도록 열심히 권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Bibliothèque Mazarine을 위한 신간서적들을 기증 또는 구입하도록 통고받는 학계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간서들을 예리하게 감식하였다. Naudé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책을 많이 소장할 수 있도록 원형 회랑과 벽에 붙인 서가 등을 고안해 도서관 설립에 대한 도면까지 설계하였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이런 다재다능함 보다는 도서관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남태우 2013, 161-162).

이와 같이, Naudé는 장서수집의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지식인들을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문헌을 수집하는 집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la collection de littérature groupe으로, 직역하면 '문헌수집단', 즉 '수서집단'이다. '문헌수집단'들은 여러 자료실 및 도서관의 장서 중 우수 장서를 파악하고 담당자의 동선 및 스타일 분석, 해당 자료가 있는 곳의 도면까지 입수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서수집활동을 벌였다(남태우 2013, 75). 이러한 '문헌수집단'들이 모은 문헌들은 Bibliothèque Mazarine의 표어이기도 한 '연구목적을 위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장서수집을 위해 '문헌수집단'을 결성한 것은

www.kci.go.kr

서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서관을 위해서는 도서관을 통째로 사들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이다. Naudé는 희귀서와 훌륭한 도서를 수집하기 위해 플랑드르(Flanders),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으로 장서수집여행을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서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당시에 파리에서 최초의 연구도서관 중의 하나가 되었다(남태우 2013, 76).

Naudé는 첫 직업과 마지막 직업이 사서였으며, '도서관 사상의 개조'로서 당시 유럽의 귀족과 지식인들이 독점해 온 장서의 사유화 내지 재산적 가치관을 바꿔놓았다. 그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도서관이 발전해 온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도서관 설립의 바람직한 동기, 운영방법, 문헌을 정리하는 기술, 시설, 비품 및 그 밖의 모든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여, 명저 『Advis…』를 남겼다. 1627년에 발행된 이 저서는 도서관학 최초의 개론서이며, 현대 도서관학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후 그의 도서관에 관한 사상과 철학은 이웃 유럽을 위시해서 멀리 미국까지 파급되었다. 때문에 그를 기리며 붙인 '위대한 사서 없이 위대한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There exists no great library without a great librarian)'는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Naudé의 '도서관 사상'을 꽃피게 한 Bibliothèque Mazarine을 고찰하는데 있다. "훌륭한 사서 없이 위대한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Naudé의 전 생애에서 '도서관 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Bibliothèque Mazarine을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audé를 일반적으로 17세기 위대한 프랑스의 의사이며, 학자이자 도서관인이라고 한다. 그를 위대한 도서관인이라고 평가한 것은 '라이브러리언십의 아버지(the father of librarianship)', '사서의 사서(Librarian's librarian)' 또는 '도서관 사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확립한 것으로 그를 '도서관 사상의 개조(開祖)'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Naudé의 사서직은 평생의 직업이었다. 이탈리아 및 스웨덴에서 13년간을 추기경 개인문고 및 왕실도서관에서 근무하였으며, 국내에서는 30여년을 근무하였는데 대부분 Bibliothèque Mazarine에서 근무하였다. 근대 도서관의 성립을 이끈 사람이 Mazarin이라고 한다면 근대 도서관의 성립을 도운 사람이라면 Naudé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당시 파리 의회의 의장 Mesme는 Naudé가 1620년 그의 나이 약관 20세에 저술한 『3월 혁명 반대 연설』 논문을 읽고 난 후 그 능력을 알고 개인도서관의 사서로 책임을 맡기게 되었다. Mesme는 금융과 정치 분야의 장서를 소장한 개인 도서관을 소유한 장서가 중 한 사람이었다. Naudé는 1622년부터 6년 동안 Mesme의 개인사서로서 Bibliotheca Memmiana를 17세기 초기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개인도서관 중 하나로 육성시켰다. 그리고 도서관 업적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이 도서관에서 6년여의 근무 경험으로 탄생한 결과물로, 1627년에 발행된 '도서관론'에 해당되는 『Advis…』 저작이다.

www.kci.go.kr

넷째, Naudé는 사서의 가치성과 전문직을 최초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기원전 Callimachus의 도서관 정신을 계승한 학자사서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Naudé의 『Advis…』 내용 가운데 현대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마도 도서관 개방과 장서열람에 대한 Naudé의 자유주의와 개방주의일 것이다. 1627년에 발행된 그의 『Advis…』는 도서관학 최초의 개론서이며, 현대 도서관학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 John C. Dana는 『Advis…』 1903년 영어판 서문에서 "그의 친구들이 요청한 사본들을 작성하고, 장서와 도서관에 관한 의견과 조언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627년에 저술하고 출간되었다"라고 저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그의 도서관에 관한 사상과 철학은 이웃 유럽을 위시해서 멀리 미국까지 파급되었다.

다섯째, Louis XIV세의 재상인 Mazarin 추기경의 개인문고를 Naudé는 1643년부터 돕기 시작하였다. 적절한 후원자와 적절한 서적인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도서관 문화를 꽃피우는 데는 좋은 토양이다. 그들의 관심은 학문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었고, 그들 열정의 실현자였던 Naudé는 독단적이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열린 마음, 폭넓은 교육과 소명의식의 큰 즐거움을 가지고서 Bibliothèque Mazarine 설립에 다가갔었다. Mazarin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1627년 『Advis…』에서 권고했던 바를 결실 맺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Naudé는 Mazarin 추기경을 위해 입수할 책들을 찾아 프랑스와 전 유럽을 누비는 '대 수집가(great collector)'로 변신하였다. Naudé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문헌수집단(la collection de littérature groupe)'의 결성에 관한 사실이다. 그는 '문헌수집단'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하고 조직한 사서였다. 그러한 그의 행동은 '위대한 책 사냥꾼(great book hunter)', '위대한 책 도둑(great book kleptomania)'이라는 식의 자료 애・소장자들의 비판과 지식인들의 환영이 섞인 별명을 얻게 되었다.

여섯째, Naudé는 Bibliothèque Mazarine에서 1643년부터 1653년경까지 사서로서 근무하였다. Mazarin은 오랫동안 도서 수집가로 활동한 장서가였으며, 이미 5,000권 이상의 장서를 로마에서 수집하였다. Mazarin의 도움으로 Naudé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어느 도서관보다 규모있는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1644년 1월 30일, 〈la Bibliothèque Mazarine〉이 세간의 지대한 관심 속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그의 도서관은 책과 서지적 지식 모두를 그의 사서들의 재량에 맡겼다. 이 날짜의 〈Paris Gazette〉지는 Mazarin이 모든 학구적이고 호기심 어린 사람들을 그의 풍부한 소장도서를 "토론하고 질문하기(feuilleter)", 문자적으로는 "훑어 볼(leaf through)" 것을 매주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도서관에서 격려했다고 보도하였다. Naudé는 가장 "생각이 깊고 현명하고 근면한 사서이자 학자로서 서적들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의 도서관은 "읽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오라(a tous ceux qui y vouloient aller estudier)"라는 모토를 제시하게 되었다.

1661년, Mazarin이 사망하였지만 Bibliothèque Mazarine의 성장은 지속되었다. 특히, 1651년 시민전쟁과 1789년 프랑스 혁명기간에도

www.kci.go.kr

Bibliothèque Mazarine은 살아 남을 수 있었다. 프랑스 혁명기간 중에는 대수도원장이자 도서관 사서인 Michael의 강력한 도움으로 수도원이나 망명한 귀족들로부터,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몰수당한 서적들의 대부분을 기증받게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648년부터 1653년까지 5년 동안 벌어진 'Fronde 난'으로 인해 Bibliothèque Mazarine이 매각되어 Naudé는 사서직에서 추방되었다. 이 추방으로 인해 Naudé는 1652년 그의 마지막 사서직으로서 스웨덴의 스톡홀름 궁정에서 왕실 사서로 봉사하게 되었다. 1653년, Mazarin 추기경이 'Fronde 난'을 제압된 뒤 정계에 복귀한 후 문고를 재건하기 시작하였고, 성공적인 재건을 위해 Naudé를 다시 프랑스로 불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로 귀국 도중 1653년 7월 29일에 53세의 나이로 북프랑스 Picardy의 Abbeville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참 고 문 헌

[1] 남태우. 2013.『노데의 도서관사상 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 송도영, 이호영, 조헌영. 2003.『프랑스의 문화산업체계』. 서울: 지식마당.

[3] 椎名六郎, 岩猿敏生. 1977.『圖書館槪論(日本圖書館學講座 1)』. 東京: 雄山閣.

[4] Baert, H. 2006-2007. *Gabriel Naudé: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1627)* Édition et commentaires. Wijbegeerte, Faculteit Letteren.

[5] Clarke, J. A. 1969. "Gabriel Naudé and the Foundations of the Scholarly Library." *The Library Quarterly*, 39(4): 331-343.

[6] Franklin, A. 1901. *Historire de la Bibliotheque Mazarine*. 2nd ed. Paris: H. Welter.

[7] Franklin, A. 1901. *Histoire de la Bibliotheque Mazarine*. Paries: H. Weiter.

[8] Kristeller, P. O. 1979. "Between the Italian Renaissance and the French Enlightenment: Gabriel Naudé as an Editor." *Renaissance Quarterly*, 32(1): 41-72.

[9] Lemke, A. B. 1991. "Gabriel Naudé and the Ideal Library." *Library Associates*, XXVI(1) (Spring, 1991): 27-44.

[10] Mowery, B. L. 1951. *Gabriel Naudé Librarian*. Illinois: Chicago.

[11] Murray, D. 1917. *Bibliography, Its Scope and Methods*. Glasgow, J. Maclehose and Sons.

[12] Murray, S. A. P. 2009. *The Library: An Illustrated History*. Chicago: ALA.

[13] Naudé, G. 1950. *Advice on Establishing a Libr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4] Naudé, G. 1627.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 Présenté à Monseigneur le Président de Mesme*. Paris: François Targa.

www.kci.go.kr

[15] Naudé, G. 1620. *Le Marfore, Ou, Discours Contre Les Libelles: D'ou Vient Cette Si Grande Folie Citoyen*. Paris: Paris-Zanzibar.

[16] Naudé, G. 1683. *Bibliographia Militaris*. Ienae: ex officina Nisiana.

[17] Naudé, G. 1642. *Bibliographia politica*. Venice, 1633, etc.; in French, 1642.

[18] Naudé, G. 1620. *Le Mar fore ou discours contre les libelles*. Paris: L. Bovlenger.

[19] Naudé, G. 1652. *News from France or A Description of the library of Cardinal Mazarin*. London, Printed for Timothy Garthwait, at the little North-door of Pauls.

[20] Rice, J. A. 1939. *Gabriel Naudé 1600-1653*. Baltimore, MD, The John Hopkins press; London, H. M, Oxford university press.

[21] Waard, C. ed. 1969. *Correspondance du P. Marin Mersenn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33-65. Sidney L. Jackson, Gabriel Naudé, Most Erudite and Most Zealous for the Common Good, Stechert Hafner Book News, 23(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Nam, T. 2013. *Study on the Thought of the Librarianship of Naudé*.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 Song, D., Lee, H., & Cho, H. 2003. *The System of Cultural Industry in France*. Seoul: JiSikMaDang Publishers.

www.kci.go.kr